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가 있는지와 이들의 관계에 대처방식과 귀인양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대학생 738명이며 이들 가운데 성 피해 경험이 있는 1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는 성 피해 경험질문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 귀인양식 질문지, 자살사고 척도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성 피해 경험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성 피해경험, 대처방식, 귀인양식, 자살사고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성 피해 경험과 자살 사고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 피해 경험은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대처방식의 경우 문제 중심적 대처만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양식에 있어서는 내외성과 전반성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대처방식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성 피해 경험이 직접적으로 자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문제 중심적 대처 및 내적 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 피해, 자살사고, 귀인양식, 대처방식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26

E-mail : kpakr@swu.ac.kr, 전화: (02) 970-5885

성피해는 여성의 삶의 모든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여성의 20-30%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성피해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cCloskey, 1997; Russell & Bolen,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결과가 보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에 의하면 1996년 한해 사이에 35.7%가 가벼운 성폭력 이상성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민정(1997)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31.5%가 성피해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성폭력의 재 경험 역시 아동기 성 피해의 30%내외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을 김정규(1998)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서영역, 인지지각영역, 신체영역, 대인관계영역, 행동영역, 성적 영역 등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피해자 입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피해자로서의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대처 방법의 어려움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 피해에 대한 개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성 피해의 폐해에 관해 언급해 왔고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 뿐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강간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 성인기의 심리적 증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정규, 김종술, 2000; 송진경, 2003; Steel, Sanna, Hammond, Whipple, & Cross, 2004).

특히 여성 자살 시도자 가운데 아동기에 성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Xavier, Low, Tobias, & Hawton,

1998),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기 어떠한 학대들보다 성학대가 자살사고나 자살행동과 관련성이 높고 자살의 심각성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Bensley, VanEenwyk, Spiker, & Schoder, 1999). 정신과 입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ipschitz, Winegar, Nicolaou, Hartnick, Wolfson, & Southwick, 1999)에서 여성의 경우만이 아동기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Stepakoff(1998)의 여대생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성피해 경험이 현재의 무망감과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으며, Thakkar, Gutierrez, Kuczen과 McCanne(200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신체 및 성 피해 모두 현재의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 피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행동과 자살사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사고 및 행동 연구는 임상가와 연구자들에게 공통되는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나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자살사고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성피해의 장기적인 영향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사건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폭력 경험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다. Williams(1993)는 동일한 학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며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지적 변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의 성 피해 경험이 성인기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과적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Seligman, Abramson, Semmel, & von Baeyer, 1979). 즉 기대치 않았던 어떤 사건에 직면하

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을 외적 혹은 내적 요인에 귀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Weiner, 1986). 예를 들어 부정적 인지양식을 지닌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자기 자신과 관련(내외성) 짓고, 이를 다른 상황과도 연관을 짓거나(전반적), 시간과 관련짓는(안정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외상적인 사건들 가운데서도 성 피해에 대한 자기 평가나 귀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Janoff-Bulman(1989)이며 아동기 성 피해 경험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비난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Celano(1992)는 학대에 따른 자기 비난을 광범위하게 설명하였는데, 성 피해 경험자들의 귀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자기 비난은 도움 추구의 실패, 성적인 학대 상황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는데 대한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 강한 수치심과 자기 비난을 나타내며 특히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ninger & Ehlers, 1998). Wyatt, Newcomb과 Notgrass(199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성 피해 이후 적응간의 관계 연구에서 귀인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여 자기비난을 하는 적응 수준이 낮은 반면, 타인 비난을 하는 사람사람은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Barker-Collo 등(2000) 역시 성 피해 이후의 자기비난이 프래시백, 악몽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을 증가시켰다고 하였고, McMillan과 Zuravin(1997)도 성피해와 관련된 자기비난은 자존감의 저하, 불안 등의 낮은 적응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Joseph, Brewin, Yule와 William(1993)의 연구에서도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 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일반적으로 내적 귀인

하는 경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2년 후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 등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권혜수와 이재창(2003)에 의하면 소년 보호교육기관에 수용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일반 청소년이나 일반인과는 달리 성 피해 경험에 대한 타인-비난적 귀인양식이 뚜렷했고 이러한 특징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이 구조적 결손 가정출신으로 사회적지지 기반이 약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가해자나, 부모, 사회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성 피해자들의 귀인과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과 관계 연구는 좀 더 제한적이기는 하나 Peters와 Ranger(1996)는 자살행동과 아동기 성 피해 이후의 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는데 아동기에 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자기비난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였다. 동시에 이와 같이 성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높은 자기비난은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자기 비난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대처기술이 부족하고 생존에 대한 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Xavier등(1998)의 연구에서도 성 피해 여성들의 피해경험에 대한 내적, 전반적, 안정적 귀인과 자살사고가 관련이 있었으며 Barker-Collo(2001)도 성 피해에 대한 자기비난이나 내재화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성 피해자들의 인지양식과 심리적 고통이나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성 피해 경험과 개인의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들은 성 피해 경험이 개인에게 불신과 수치심을 증

가시켜 대처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은 아동기 및 성인기 학대 경험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내는 성인기의 심리적인 증상들과 관련이 있는(Kuyken & Brewin, 1999) 반면에 문제 중심적 대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nge et al., 1999).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정서적인 반응으로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느낌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여긴다. 반면에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자원을 넓혀가는 전략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요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서중심적인 대처는 심리적인 고통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문제 중심적 대처는 아동기 성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능을 증가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Coffey et al., 1996; Shapiro & Levendosky, 1999). Shapiro와 Levendosky (199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집단에서 아동기 성 피해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중심적 대처전략이 성 피해와 관련된 특성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종속변인인 심리적 고통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Edward와 Holden(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자살사고는 문제 중심적 대처의 부족과 정서 중심적 대처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인생에 대한 의미추구가 이들 간에서 완충작용을 하였다.

이와 같이 성피해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장기적으로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여성의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처전략, 통제에 대한 지각, 기본적인 신념들의 인지적 변인들의 매개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Boesch, Koss, Figueredo, Coan, 2001; Frazier, 2000). 성 피해 경험과 심리적 고통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들을 검증한 Steel 등(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 및 내적 귀인 양식이 성 피해 경험과 성인기의 심리적 증상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llman(2004)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의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성 피해 경험과 이후의 심리적 후유증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나 귀인양식과 같은 인지적인 변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그 결과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혹은 연구 대상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 피해가 심리적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성 피해 경험이 우리문화에서도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과 귀인양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S 여자대학교 학생 73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피해 경험 질문지, 자살사고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귀인 양식 질문지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성 피해 경험 질문지에서 한번이라도 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149명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중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신뢰롭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120명의 평균 연령은 21.77세(SD=1.58)이었으며 1학년 31명(25.8%), 2학년 36명(30.0%), 3학년 32명(26.7%), 4학년 21명(17.5%)로 나타났다. 한편 처음으로 성 피해를 경험한 연령의 범위는 9세에서 24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17.56세(SD=3.10)이었다. 연령 대 별로 살펴보면 13세 이전 14명(11.7%), 14-18세 59명(49.1%), 18세 이상 47명(39.2%)였다.

측정도구

성피해 경험 질문지

이주성(2004)이 구성한 피학대 경험 질문지 가운데 성 피해 질문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시각적 성피해(2 문항), 신체적 성피해(2문항), 강제성관계 시도 및 미수와 관련된 문항(3문항)등 총 8문항과 처음으로 성 피해를 경험한 연령과 지속기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피해 회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마다 “전혀 없었다(0점)”부터 “10회 이상(4점)” 등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이주성(2004)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6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1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대처방식 척도 개정판을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만든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62문항으로서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와 같은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환경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변화시킴으로서 스트레스의 근원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둘째, 정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정서를 통제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나 이를 유발하는 상황, 사건 등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대처방식을 가리킨다. 넷째,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의 해결을 위한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대처방식을 말한다. 김정희와 이장호(1985)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87-.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의 경우 .86, 정서 중심적 대처는 .75, 소망적 사고는 .73,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68이었다.

귀인양식 질문지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Peterson et al., 1982: AS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개인의 귀인 양식에 대해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로서 피험자들은 12개의 가상의 상황에 대해 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의 긍정적인 상황과 6개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상황마다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상황의 주된 원인

하나를 간단히 기술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며 둘째, 셋째, 넷째 질문은 각 상황에 대한 원인을 내외성(Internality), 안정성(Stability), 전반성(Globality)의 차원에 따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귀인 양식 질문지에서 내외성은 어떤 특성의 행위를 내부 상태에 귀인하느냐 외부 환경에 귀인하느냐를 가리키며, 안정성은 내적-외적 귀인과 행위의 원인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성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가상적인 상황 중 대학생들과 관련성이 적은 4개의 상황을 제외하고 성 피해 상황을 포함한 8개 상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최종 분석에서는 4개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만을 분석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귀인을 많이 하고 안정성과 전반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63이었다.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원래는 임상가가 임상장면에서 면접을 통해 평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답안은 0에서 2점의 범위인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종술(1990)이 자기 보고식 척도로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성 피해를 처음으로 경험한 연령의 범위 및

평균을 알아보았고, 성 피해유형별 빈도, 경험의 총 빈도, 지속기간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대생의 성 피해 경험,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양식, 자살사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14.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피해 경험 빈도 및 지속 기간

본 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을 시각적 성피해, 신체적 성피해, 강제성관계 시도 및 미수로 구분하였으며 성 피해 유형별 경험 빈도, 성피해 총 경험 빈도, 성피해 지속 기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피해 하위 유형 별로 살펴보면 강압적인 키스나 포옹을 당한 경우가 전체 피험자 중 65명(54.2%)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시각적 성희롱 중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보여준 경우가 57명(47.5%)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한편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31명(25.8%)로 나타났으며 8.3%(10명)의 피험자는 강제 성관계를 당하였고 성기나 항문에 이물질 삽입을 당한 경우도 6명(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란물을 보여준 경우, 성기 및 신체 부위 접촉을 경험한 사람이 각각 29명으로서 전체 피험자 중 24.2%를

표 1. 성피해 유형별 빈도, 성피해 경험 총 빈도, 성피해 지속 기간 (N=120)

성 피해 내용 (중복응답)		빈도
시각적 성 피해	음란물 보여줌	29(24.2%)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보여줌	57(47.5%)
신체적 성 피해	강제 키스와 포옹	65(54.2%)
	성기, 신체 접촉	29(24.2%)
	성기나 신체를 만져달라는 요구	11(9.2%)
강제 성관계 시도 및 미수	강제 성관계 미수	31(25.8%)
	강제 성관계	10(8.3%)
	성기나 항문에 이물질 삽입	6(5.0%)
성피해 경험 총 빈도	1-2회	81(70.0%)
	3-9회	33(27.5%)
	10회 이상	3(2.5%)
성피해 지속기간	1일	53(44.2%)
	일주일	27(22.5%)
	2-3개월	23(19.2%)
	6개월	11(9.2%)
	1년 이상	6(5.0%)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성기나 신체를 만져달라는 강요를 당한 경우는 11명(9.2%)이었다. 성피해 경험 총 빈도를 살펴보면 1-2회가 81명으로서 전체 피해자의 70.0%로 나타났으며 3-9회가 33명(27.5%), 10회 이상의 피해자는 3명으로서 2.5%를 차지하였다. 성피해 지속 기간의 경우 1일 53명(44.2%), 일주일 27명(22.5%), 2-3개월 23명(19.2%), 6개월 11명(9.2%), 1년 이상이 6명(5.0%)으로 나타나 2개월 이상 비교적 장기적인 성피해가 28.4%로 조사되었다.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 대처 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 대처 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양식,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피해 경험은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 p<.01$. 대처 방식의 경우 4개 하위 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처만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5, p<.001$. 그 밖의 다른 하위 요인들은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의 경우 3개 하위 요인 중 내외성, $r=.28, p<.01$, 전반성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20, p<.05$, 안정성은 상관이 없었다, $r=.15, n.s.$

표 2. 성피해 경험, 대처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양식,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 (N=120)

	성피해 경험	자살 사고	CS 1	CS 2	CS 3	CS 4	NA 1	NA2	NA3
성피해 경험									
자살사고	.26**								
CS 1	-.18*	-.35***							
CS 2	-.01	.08	.34***						
CS 3	-.03	-.10.	.58***	.55***					
CS 4	-.03	-.13	.36**	.24**	.36**				
NA 1	.23*	.28**	-.09	.11	.13	.12			
NA 2	.11	.15	-.19*	-.07	-.05	-.13	-.05		
NA 3	.22*	.20*	-.26**	-.30	-.04	-.19*	.26**	.30**	
M	2.27	6.88	48.00	49.87	32.50	14.80	19.96	18.31	18.68
SD	1.92	5.65	8.42	7.86	5.27	3.02	3.43	5.86	4.16

주. * $p < .05$ ** $p < .01$ *** $p < .001$

CS 1 : 문제 중심적 대처 CS 2 : 정서 중심적 대처 CS 3 : 소망적 사고 대처

CS 4 :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NA 1 : 내외성 NA 2 : 안정성 NA 3 : 전반성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에서 대처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양식, 매개효과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한 Baron과 Kenny(1986)의 모형에 근거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예언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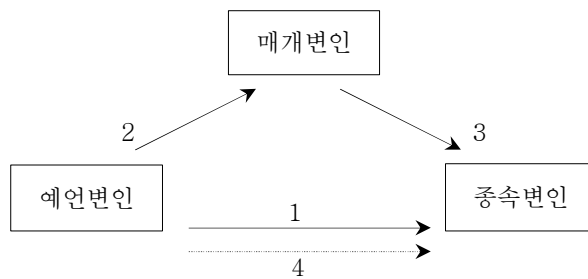


그림 1. 매개효과 모형

하고(그림 1에서 경로 '2') 둘째, 가정된 매개 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그림 1에서 경로 '3') 셋째,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 예언변인의 종속 변인에 대한 효과가 감소해야 한다.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대처 방식의 경우 4개 하위 요인 중 단지 문제 중심적 대처만이 성피해 경험 및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성 피해 경험 및 자살사고와 관계가 없었던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 추구를 제외하였다.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언 변인인 성피해 경험의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가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성피해 경험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문제 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그러나 매개 변인으로 가정된 문제 중심적 대처를 투입하고 난 후에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에 대한 성피해 경험의 효과가 현

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는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 중심적 대처의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예언변인인 성피해 경험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고 있어 문제 중심적 대처는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피해 경험이 직접 자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성피해를 경험한 후에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은 내외성, 안정성, 전반성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안정성의 경우 예언변인인 성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에서는 제외되었다.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인 내외성, 전반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 3.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 (N=120)

1. 성피해 경험 → 자살사고	$\beta=.26$	$t=2.88^{**}$
2. 성피해 경험 → 문제 중심적 대처	$\beta=-.18$	$t=-2.03^{**}$
3. 성피해 경험 → 자살사고	$\beta=.20$	$t=2.31^*$
4. 문제 중심적 대처 → 자살사고	$\beta=-.31$	$t=-3.63^{***}$

주. * $p<.05$ ** $p<.01$ *** $p<.001$

표 4.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내외성의 매개효과 (N=120)

1. 성피해 경험 → 자살사고	$\beta=.26$	$t=2.88^{**}$
2. 성피해 경험 → 내외성	$\beta=.23$	$t=2.56^*$
3. 성피해 경험 → 자살사고	$\beta=.20$	$t=2.29^*$
4. 내외성 → 자살사고	$\beta=.23$	$t=2.56^*$

주. * $p<.05$ ** $p<.01$

표 5.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전반성의 매개효과 (N=120)

1. 성피해 경험 → 자살사고	$\beta=.26$	$t=2.88^{**}$
2. 성피해 경험 → 전반성	$\beta=.22$	$t=2.42^*$
3. 성피해 경험 → 자살사고	$\beta=.22$	$t=2.48^*$
4. 전반성 → 자살사고	$\beta=.15$	$t=1.63$

주. * $p<.05$ ** $p<.01$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4, 5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언변인인 성피해 경험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beta=.26, p<.01$. 그러나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내외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살사고

에 대한 성피해 경험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eta=.20, p<.05$. 그러나 내외성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성피해 경험의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 역시 유의하여 부정적 사건 귀인 양식 중 내외성은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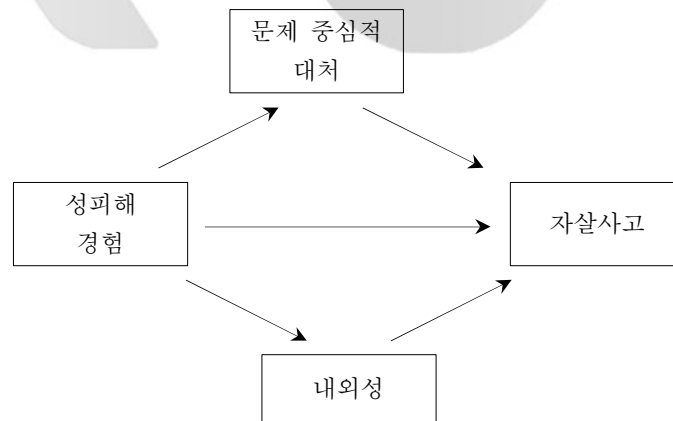


그림 2.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내외성의 매개효과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피해 경험은 자살사고를 직접적으로 예측해 주기도 하지만 성피해를 경험한 후에 부정적인 사건 경험에 대한 내적 귀인을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피해 경험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또한 가정된 매개변인인 전반성을 투입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특히 전반성은 성 피해 경험과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살사고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성은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그림 2에 여대생의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와 내외성의 부분 매개효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논 의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이러한 학대 경험이 개인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증거들이 보고된 바 있다(권희경, 박경, 2003; 김정규, 1998; 김경희, 2004; 송진경, 2003).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 피해자들은 우울, 불안, 무력감,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문제, 성문제, 신체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반복 피해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이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 피해가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채규만 정민철, 2004). 이처럼 성 피해에 대한 연구자들은 성 피해의 결과가 정신건강 전

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기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이 주는 장기적 후유증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자살사고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자살행동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위험성들은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살사고 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인지양식 및 대처양식 등이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여대생 가운데 성 피해 경험은 16.3%로 외국의 연구에서의 20-30% (Brener, McMahon, Douglas, 1999; Russell & Bolen, 2002)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 피해 경험자 시작 나이는 9세-24세(M=17.5) 사이였고, 연령 대 별로 살펴보면 13세 이전 11.7%, 14-18세 49.1%, 18세 이상 47%였다. 이러한 결과 아동기 이전에 피해 경험을 한 빈도는 비행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권해수 등의 연구 19.8%와 일반 중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포함된 권희경 등(2003)의 연구 15.4% 보다는 다소 낮았다.

종속 변인인 자살사고와 성 피해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상정한 매개 변인인 인지 양식과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는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기 성인기 모두에서 여성의 성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 및 행동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한다(Ackard & Neumark-Sztainer, 2002; Bensley, Van Eenwyk, Spieker, & Schoder, 1999; Ullman & Brecklin, 2002). 또한 성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는데, 이는 여대생 대상의 연구들(Stepkoff, 1998; Thakkar, Gutierrez,

Kuczen, & McCanne, 2000)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 피해 경험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었다. 즉, Ullman 과 Brecklin(2002)에 의하면 아동기 성인기 모두에서 성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아동기나 성인기중 한 시기에만 성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복 성피해 경험이 자살사고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성피해 경험과 부정적인 인지 양식과의 관계에서는 내적 귀인, 즉 자기 비난과 전반성에서 정적인 상관을 타나냈으나 안정성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 피해 경험은 자기비난과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생각과는 관련이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귀인과는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살사고와 귀인양식과의 관계도 내적 귀인 및 전반성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 피해경험과 자기 비난적 귀인과 관련이 있다고 한 Mannarino와 Cohen(1996)의 연구 및 성피해 집단은 상황적 자기비난과 기질적 자기비난을 많이 한다는 김경희(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성 피해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비난의 방향(내외성)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Barker-Collo(2002)는 성인기에 보고된 아동기 및 성인기의 귀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 비난적 귀인의 방향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 피해 대상이 청소년 비행 집단일 경우 귀인양식이 타인-비난적 일 때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어서(권혜수 등, 2003) 이들에 대한 중재 방안은 일반 청소년

과는 달라야 함을 시사하였다.

성 피해 경험과 대처 방식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만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자살사고 간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이들 간에서 성 피해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문제 중심적 대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원을 정서적인 반응으로 통제하려는 전략인 정서중심적인 대처 사용이 성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Kuyken & Brewin, 1999; Sigmon, et al., 1996)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서중심적인 대처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중심적인 대처 사용을 강화하는 도움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에 있어 사회적 지지 추구가 매개 변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Steel등(2004)과 Tremblay등(1999)에 의하면 아동기 및 성인기의 성 피해와 심리적 고통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경우 성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추구를 통한 도움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기대하지 않는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피해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성 피해를 포함한 학대 경험의 이론가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신병리가 유발되는지에 관심을 두어왔다. Sameroff와 Fiese(1990)는 처음으로 성 피해를 포함한 학대 스트레스는 개인-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 결과를 예측하는 경로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대경험의 스트레스는 학대에 대한 대처전략과 인지적 지각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Spaccarelli(1994)는 이 모델의 장점으로 학대 경험의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유리하여 한 개인이 유사한 스트레스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검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 피해 경험과 자살 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와 내적 귀인이 매개함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지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인지양식과 대처 방식이 어떠한 매개를 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인지 양식에서는 내적 귀인 양식이, 대처 방식 가운데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매개 변인으로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의 아동기 및 성인기의 성 피해 경험은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자기 비난적 귀인 양식과 문제 중심적 대처의 부족 이 매개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 및 상담가들이 성 피해로 나타나는 자살사고의 심각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개입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비난적 귀인은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성 피해 상담자는 성 피해 경험자가 드러내는 자기 비난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심리 교육적 개입이 요구되고 자기 비난을 감소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기 비난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치료 개입으로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접근은 특히 대학 상담에서 성 피해 학생이 자기비난에 도전하여 부정적 신념을 바꾸어 자신의 강점과 힘을 반영한 논리적 진술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성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반응 등을 수용해 주는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성 피해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인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상적인 지지와 문제 중심적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요망된다. Kress, Trippany와 Nolan(2003)은 성 피해 대학생의 상담의 효율적인 중재로 인지행동적인 접근 이외에도 성폭력의 수준 차이와 외상에 따른 반응 및 회복 되는 단계에 따라 치료적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 피해 경험과 관련된 특성과 성 피해 경험이 성인기의 자살사고로 발전하는데 있어 성 피해와 관련된 매개변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가정된 변인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매개변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모형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이므로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성 피해 경험이 자살사고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성 피해 특징에 따른 자살사고의 매개과정을 살펴보는 못한 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 피해 시작시기, 기간, 대상 등의 성 피해 특징이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인지 양식, 대처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매개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을 아동기 피해와 성인기 피해로 구분하여 인지양식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의 구체적인 특징들에 따른 심리 사회적인 변인들의 작용 경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앞으로는 아동기 및 성인기 성피해 경험이 정신과적인 후유증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성피해 경험이 정신병리로 이어지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매개 혹은 중재 변인들에 대한 연구의 수행은 성 피해 경험의 치료적 개입이나 예방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의 측정을 빈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중요시 되어야 할 성 피해의 강도에도 초점을 두어 성 피해 유형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권해수, 이재창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 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 연구*, 11(1), 22-31.

권희경, 박경 (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5-32.

김경희 (2004). 성적 재희생 여대생들의 심리적

및 행동적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1997). 여대생의 아동기 성학대 피해경험과 심리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31-345.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9-769.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 요인과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 7, 127-138.

송진경 (2003). 대학생 성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20-32.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이주성 (2004). 아동기 피해대 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규만, 정민철 (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69-885.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8).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Ackard, D. M., & Neumark-Sztainer, D. (2002).

- Date violence and date rape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6, 455-473.
- Barker-Collo, S. L., Melnyk, W. T., & McDonald-Miszczak, L. (2000).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for sexually abused fem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4), 375-39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nsley, L., VanEenwyk, J., Spiker, S. J., & Schoder, J. (1999). Self-reported abuse histor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 Antisocial and suicid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4(3), 163-172.
- Boesch, L. E., Koss, M. P., Figueredo, A. J., & Coan, J. A. (2001). Experiential avoidance and PTSD: A cognitive mediational model of rape recover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4, 211-245.
- Brener, N. D., McMahon, P. M., Warren, C. W., & Douglas, K. A. (1999). Forced sexual intercours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252-259.
- Celano, M. P. (1992). A developmental model of victim's internal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57-69.
-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Turner, T., & Bennett, R.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methods of coping during adulthood with history of child sexual abuse and current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1090-1093.
- Edwards, M. J., & Holden, R. R. (2001). Coping,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manifestation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 1517-1534.
- Fondacaro, K. M., & Butler, W. M. (1995). Suicidality in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In S. S. Canetto, & D. Lester (Eds.), *Women and suicidal behavior* (pp. 192-204). New York: Springer.
- Frazier, P. A. (2000). The role of attributions and perceived control in recovery from rape.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5, 203-226.
- Janoff-Bulman, P.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 113-136.
- Joseph, S., Brewin, C., Yule, W., & Williams, R. (1993). Causal attribu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in adolescent survivors of disast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247-253.
- Kress, V. E. W., Trippany, R. L. & Nolan, J. M. (2003). Response to sexual assault victims: considerations for college counselor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6(2), 124-133.
- Kuyken, W., & Brewin, C. R. (1999). The relation of early abuse to cognition and coping in

-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6), 665-677.
- Lange, A., de Beurs, E., Dolan, C., Lachnit, T., Sjollem, S., & Hanewald, G. (1999). Long-term effects of childhood sexual abuse: Objective and su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abuse and psychopathology in later lif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3), 150-158.
- Lipschitz, D. S., Winegar, R. K., Nicolaou, A. L., Hartnick, E., Wolfson, M., & Southwick, S. M. (1999). Perceived abuse and neglect as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 inpati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 32-39.
- Mannarino, A. P., & Cohen, J. A. (1996). Abuse-related attributions and perceptions, general attributions, and locus of control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162-180.
- McCloskey, L. (1997). The continuum of harm: Girls and women at risk sexual abuse across lifespan.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rauma*, 8, 553-578. New York: Rochester University Press.
- McMillan, C., & Zuravin, S. (1997).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for child sexual abuse and adult adjus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30-48.
- Peters, D. K., & Ranger, L. M. (1996). Self-Blame and self-destruction in women sexually abused as childre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5(4), 19-33.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 Seligman, M.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3), 287-299.
- Russell, D. E. H., & Bolen, R. M. (2000). *The epidemic of rape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United States*. Thousand Oaks, CA: Sage.
- Sameroff, A. J., & Fiese, B. H. (1990). Transactional regulations and early intervention.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119-1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Abramson, L. Y., Semmel, A., & von Baeyer, C.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3), 242-247.
- Shapiro, D. L., & Levendosky, A. A. (1999). Adolescen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mediating role of attachment style and coping in psychological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23(11), 1175-1191.
- Sigmon, S. T., Greene, M. P., Rohan, K. J., & Nichols, J. E. (1996). Coping and adjustment in male and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5(3), 57-76.
- Spaccarelli, S. (199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Child Sexual Abus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2), 340-362.
- Steel, J., Sanna, L., Hammond, B., Whipple, J., & Cross, H. (2004). Psychological sequelae of childhood sexual abuse: abuse-related

- characteristic, coping strategies, and attributional style. *Child Abuse & Neglect*, 28, 785-801.
- Stepakoff, S. (1998). Effects of sexual victimization on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in U.S. college wome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107-126.
- Thakkar, R. R., Gutierrez, P. M., Kuczen, C. L., & McCanne, T. R. (2000). History of physical and/or sexual abuse and current suicidality in college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24, 1345-1354.
- Tremblay, C., Hebrt, M., & Piche, C. (1999).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consequences in child sexual abuse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23(9), 929-945.
- Ullman, S. E., & Brecklin, L. R. (2002). Sexual assault history and suicidal behavior in a national sample of wome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2, 117-130.
- Ullman, S. E. (2004). Sexual assault history and suicidal behavior in wom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331-351.
- Weiner, B. (1986). Spontaneous causal thinking. *Psychological Bulletin*, 97, 94-84.
- Wenninger, K., & Ehlers, A. (1998). Dysfunctional cognition and adult psychological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2), 281-300.
- Williams, J. M. G. (1993). Assessing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What makes it more sever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2), 41-59.
- Wyatt, G. E., Newcomb, M., & Notgrass, C. M. (1991). Internal and external mediators of women's rape experiences. In A. W. Burgess (Ed.), *Rape and sexual assault III* (pp. 29-55).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Xavier, C., Law, F., Tobias, A., & Hawton, K. (1998). Child sexual abuse in women who take overdoses. I. A study of prevalence and severit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4(4), 291-306.
- 1 차원고접수 : 2006. 8. 13.
심사통과접수 : 2006. 9. 18.
최종원고접수 : 2006. 9. 23.

The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ttributional style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yung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rgued that suicidal ideation was related to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at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and attribution style were testifi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experience of sexual abuses. Survey group were 738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mong them, 120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abuses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group.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questionnaire for sexual abuse experiences, scale of coping style of stress, questionnaire for negative attribution style, and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 of sexual abuses were analys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o test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sexual abuses, coping style, attribution style, and suicidal ideation.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estify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and attribution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sexual abuse and suicidal ideation. As the result, experience of sexual abuse and suicidal ideation had some positive relation. For coping style, problem-oriented coping style had on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For attribution style, internality and globality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Even though experience of sexual abuse affected directly on suicidal ideation, problem-oriented coping and internal attribution mediated sexual abuse to suicidal ideation indirectly.

Key words : sexual assault, suicide ideation, attributional style, coping strategy